

어려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로

결식아동 돕기 사랑의 친구들 14번째 바자

2011년 10월 15일(토)~16(일)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 앞뜰



믿을 수 있는 남도농산물
해외 유명상품
꼭 필요한 생활용품
사회저명인사의 기증물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후원 : 글로벌어린이재단, 외환은행 나눔재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주최 :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www.friends.or.kr / 734-4945~7

지난 2010바자를 후원해주신 기업 및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주)GB코리아아이앤씨 ● (주)K.H.J.Inc (강희숙부티크) ● (주)농협창동농산물종합 ● (주)대자연네트웍스 ● (주)동원F&B ● (주)두산 ● (주)성현약기 ● (주)송학식품 ● (주)신원엔스
(주)웅진씽크빅 ● (주)질경이유리웃 ● (주)코스모 코리아 양재점 ● (주)포송(파코라반) ● (주)한성에프앤씨 ● CJ 제일제당 ● J&J Gallery ● JK상사 ● L.J.마용예술교육원 ●
M.D 제르마나 ● Macy's 서울지점 ● Pacific Islands Club Korea ● 시설휘장품 ● 3.1여성동지회 ● 5.17가족 ● 구정치과 ● 국순당 ● 그랜드유평호텔 ● 글로벌어린이재단 ● 금호전기
(주) ● 길병원 ● 김내현 화랑 ● 나드리루센스화장품 ● 노아리집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다경물산 ● 대경상사 ● 대림산업(주) ● 대신제분(주) ● 대풍직물 ● 디브루너코리아(주) ● 람
바자 ● 루디아(리디아스) ● 마담권 ● 모나비 ● 버리비 ● 보우실업 ● 보해양조(주) ● 블루마린 ● 비둘기회 ● 샘표식품(주)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서울월드포터리클럽 ● 성북한미음
봉사회 ● 소아코리아 ● 신라구두 ● 심슨 ● 싸앤씨통상 ● 아리랑떡고을 ● 아시아나항공 ● 양리가방 ● 애경산업(주) ● 에스더기도선교회 ● 에스에이치엔네트웍스 ● 여성신문사 ● 예촌
● 오라클피부과 ● 외환은행나눔재단 ● 우리은행 ● 유한킴벌리 ● 이노통상 ● 이영희프린트 ● 자스민 ● 전라남도 목련회 ● 정안식품 ● 종이문화재단 ● (주)까사미아 ● (주)슈퍼리어
(주)더스킨컴퍼니 ● (주)메디컬그룹 베스티안 ● (주)미스자콜렉션 ● (주)빙그레 ● (주)삼성금속 ● (주)실버텍스 ● 아태여성아카데미 ● (주)에프앤씨 대산 ● (주)유라 ● (주)유유제약
● 인사모 ● (주)인성내츨 ● (주)제이아이콜렉션 ● (주)크리스퍼션(PING) ● (주)클리오 ● (주)한아인터내셔널(앙스모드) ● (주)화이버텍 ● 진공방 ● 클럽앤갤러리 ● 허우스레서피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한국콜마(주) ● 한미기획 ● 한반도재단 여성위원회 ● 한진택배 ● 호주대사관

발행인 : 김성재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483
Tel : (02)734-4945-7
Fax : (02)734-4948
E-mail : folove831@korea.com
Homepage : www.friends.or.kr

사랑의 친구들

Friends of Love

2011년 9월 / 통권 제 32 호



고국의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 봉사하는 기쁨과 감사

정경애 (글로벌어린이재단 총회장)

글로벌어린이재단이 사랑의 친구들의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에 참여한 지 어느새 13년이 되었다.

세계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는 글로벌어린이재단(구 나라사랑어머니회)은 1998년, 우리의 고국이 IMF 위기를 맞아 결식아동들이 늘어나자 고국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밥끓는 어린이들을 먹이고자 미국 동부 워싱턴지역에서 시작된 세계유일의 여성구제기관이다. 현재 미국 전국의 대도시에 16개 지부와 한국, 일본, 홍콩, 캐나다 등 20개 지부에 회원 4,000여 명을 둔 국제적인 자선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금년에는 지난 13년 동안 성실하고 투명하게 재단을 운영하고 어린이들을 도운 것을 인정받아 미연방정부 공무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 모두가 그동안 바쁜 미국생활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우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남모르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지난 7월 뉴욕에서 개최한 글로벌어린이재단 창립 13주년 행사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부인 유순택 여사를 통해 축하연설을 대독케 하였고, 찰스 랭글 미연방 하원의원께서도 축사를 해주었다. 우리 재단이 오늘날 이렇게 미국 주류사회와 동포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우리 한인 어머니들의 열성적이고 강한 모성에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올해도 "사랑나누기 바자"가 10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 앞뜰에서 열린다. 이 바자는 서울과 지방의 공부방 및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행사이다. 이미 서울에 미국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바자 물품준비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고국의 소외된 어린이들을 돕는 그 마음 하나로 바자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물품 구매비용은 물론 항공료와 숙박비를 자비로 부담하면서도 기쁘게 봉사하러 서울에 온다. 이런 어머니들이 있기에 오늘의 글로벌어린이재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바자 단골손님이 늘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더구나 바자장에는 해마다 품질좋은 농산물이 시골에서 올라오고 저렴한 고급의류들, 수제화, 먹거리, 외국인 코너가 있으며 유명한 분들의 소장품들도 경매로 구입할 수 있다. 올해 바자도 어머니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있으므로 성공리에 잘 치루리라 생각한다.

이 바자를 통해 우리 회원들도 더 결속이 되고, 고국에 나와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매년 만나볼 수 있게 만들어 준 사랑의 친구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바자를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수고해 온 사랑의 친구들의 김성재 회장님과 이정원 사무총장님, 모든 준비위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글로벌어린이재단 회원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특별하고도 재미있는 영어수업으로 흥미도, 성적도 쑥쑥 올라요

미래회 후원으로 2007년 시작, 전국에서 811개 공부방 참여



경제적인 이유로 학원을 다닐 수 없거나 기회가 적은 공부방 어린이들이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2007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9차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1~2회 공부방을 방문해 다양한 교재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고 점차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랑의 친구들에서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교재를 지원하고 기간은 3개월로 정해 1년에 네차례 진행한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는 영어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도 개최해 발표와 야외체험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9월부터 새로이 1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의 총 62개 기관에서 19차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8월 30일에는 18차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에 참여한 55개 공부방중 52개 기관의 교사들과 새롭게 선정된 10개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와 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평가회 및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평가회에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을 후원하는 미래회(회장 홍수정)의 임원과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19차 지원기관]

가야지역아동센터	동산지역아동센터	석남지역아동센터	월곡청소년센터방과후교실	평강지역아동센터스쿨
갈현지역아동센터	풀레랑스지역아동센터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은평지역아동센터	평화디딤돌지역아동센터
광주문흥골지역아동센터	마리아지역아동센터	세움터지역아동센터	이현지역아동센터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
구암지역아동센터	만수행복지역아동센터	소망지역아동센터	임마누엘지역아동센터	풀코스모스지역아동센터
극동지역아동센터	무지개지역아동센터(광주)	씨앗지역아동센터	전농방과후교실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꿈동산지역아동센터	무지개지역아동센터(익산)	아!우리지역아동센터	정금지역아동센터	한사랑지역아동센터
꿈이있는푸른학교	문흥지역아동센터	에스더학교지역아동센터	조이스터디지역아동센터	해비터트지역아동센터
꿈쟁이지역아동센터	미소지역아동센터	엘림지역아동센터	주사랑지역아동센터	행복한지역아동센터
나래지역아동센터(광주)	반어지역아동센터	열린지역아동센터	지구촌지역아동센터	향기로은지역아동센터
나래지역아동센터(서울)	보금자리지역아동센터	영순지역아동센터	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	희망지역아동센터
내의지역아동센터	보아지역아동센터	예향꿈터지역아동센터	천음방과후교실	
다솜지역아동센터	봉덕지역아동센터	오정지역아동센터	초지마을지역아동센터	
다정한지역아동센터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	원미지역아동센터	춘천반석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를 하면서

영어로 말하기가 한국말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그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영어학을 전공하는 하킴입니다. 2010년 4월부터 사랑의 친구들을 통해 전농방과후 교실에서 영어를 가르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과외 경험도 있고, 가르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니까 쉽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친밀하게 느끼고, 좋아하며 원어민과 같은 발음으로 한 단어씩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 수업 중에 저와 친구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영어로 대화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싫어했으며, 각자 성격이 다르고, 이해하는 수준도 달랐으며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공부보다는 놀고 싶어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열성을 다했고 또 공부방 선생님의 도움으로 우리 친구들의 수업태도와 영어실력이 나날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작한 지 3주후부터 우리 친구들의 발음이 정말 좋아지게 됐으며 영어와 많이 친숙해졌고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연결하고 문장을 만들고 대화하는 것은 계속 조금씩 연습해 왔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 많이 약하지만 나에게 와서 문장을 읽어주고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서 참 기쁘며 가르침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단어 외우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서 게임을 통해 암기하게 했으며 Left and right의 게임이나 단어를 외울 때 1등을 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전과 자극을 받는듯 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를 잘 하게 하기 위한 영향력과 지혜, 인내와 참음성, 온유함이 제게 많이 부족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영어를 가르치도록 허락하신 방과후교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생님의 조언을 잘 듣고 애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아이들이 영어 말하기가 한국말을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빨리 오게 되길 바랍니다.

랄는 하킴 _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전농방과후교실 자원봉사자



광화문 광장의 시원한 분수놀이 최고!

5월 16일~18일 '전남 담양지역 어린이 서울초청'



서울초청행사는 지방의 저소득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하는 행사로써 올해로 12번째 이루어졌다. 올해는 전남 담양의 금성지역아동센터, 담양지역아동센터, 대치지역아동센터, 봉산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과 교사 51명이 서울로 초청되었다.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도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정경애)에서 4,000달러를 후원했다.

5월 16일~18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서울초청행사는 담양지역 어린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서울을 방문한 어린이들은 첫날 평소 TV로만 보았던 시청광장, 청계천, 광화문광장을 거쳐 경복궁까지 서울의 중심부를 자유롭게 걸으며 관람했다. 저녁에는 글

로벌어린이재단 서울지부 김성수 회장이 자리를 함께 해 초청행사 후원금을 전달했고, 공부방 어린이들은 각자의 공부방을 소개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 마음을 열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오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견학 및 고구려 고분탐험을 통해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경험했다. 탐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직접 활을 쏘고 고구려의 유적들을 만지며 상상력을 키웠다. 오후에는 남산 주변의 숨겨진 역사적 명소와 어린이 과학탐구관을 찾아 전시된 과학기자재를 직접 만지고, 작동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울타워관람 후 남산 봉수대에서 펼쳐진 전통문화공연은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호기심을 더해준 일정이었다.

마지막 날은 모든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놀이체험 시간으로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를 방문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에 도전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남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서울의 엄청난 집들!

“셋별아 너 서울 가봤니?” 공부방 선생님께서 느닷없이 물어보셨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조금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셋별이 좋겠네. 서울 구경 갈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에 금방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5월 16일 서울 가기 전날 가방을 꺼내놓고 이것저것 준비물들과 옷들을 챙겨넣으면서 괜히 마음이 설레고 여러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16일 아침 주희, 은빈, 찬우, 중기, 민제 등 친구들과 함께 읍내에 있는 문화회관으로 가서 관광버스를 타고 다른 센터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서울로 출발하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도 보고 친구들과 장난도 치다가 잠도 자고 하다 보니 오후 1시 쯤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옛날 임금님의 집이었다는 경복궁도 가보니 엄청 넓고 집도 커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광화문에서 본 수문장 교대식은 더웠지만 신기했고, 광장의 넓은 길을 친구들과 걸으면서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도 보고 분수가 있는 곳에서는 분수 속으로 뛰어다니니 아주 시원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모든 센터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에는 오전에 박물관에 갔었는데 이것저것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고 특히 고구려탐험대라는 것을 참가해서 활쏘기, 고구려 춤추기 등도 따라해 보았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남산으로 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서울의 광경을 내려다보니 얼마나 집이 많은지 놀랐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지하로 내려가서 많은 과학 기구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친구들과 신나게 이것저것, 여기저기를 들여다보면서 뛰어다녔습니다. 남산 꼭대기에서 본 농악놀이도 재미있었고 무술시합 같은 것을 보았는데 단칼에 무엇이든 베어버리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에버랜드에 간 일입니다. 멋진 곳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정말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놀이기구를 많이 타려고 달려 다니면서 아마존이라는 곳에서는 배를 타고 계곡 같은 곳을 지나면서 물벼락을 맞기도 하고 엄청 오래 기다려서 탄 놀이기구는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심하게 하는지 눈을 뜨지 못했지만 무섭고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2박3일의 서울 여행!!!!!!
여러 가지로 재미가 있었고 서울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사랑의 친구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봉산초등학교 5학년 강셋별



비가 와도 날이 더워도 캠프는 정말 신나요!!

글로벌어린이재단 후원으로 연합캠프 11곳 지원, 1,600여 명의 어린이 참여

사랑의 친구들에서는 2004년부터 전국의 공부방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으로 5개 이상의 공부방이 연합하는 연합캠프를 공모해왔다. 올해도 여름방학 동안 진행할 캠프를 공모해 서류심사와 기관방문을 거쳐 모두 11개 연합캠프를 선정했다. 가정으로부터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빈곤가정의 어린이들은 캠프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공동체 의식과 집단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부방으로서는 연합하여 캠프를 준비하므로 손이 많이 가는 대형 프로그램이나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되었다.



♥ 전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內 올타리솔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임) “홀로 서는 방법 터득하기 여름캠프”

2011. 8. 2 ~ 8. 4 | 전북 교통문화연수원

- ★ 부모나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어린이들이 직접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자연 속에서 단체활동을 통해 배려하고 남과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배운다.
- ★ 기쁜우리지역아동센터, 낙수지역아동센터, 덕진지역아동센터, 소망지역아동센터, 솔내지역아동센터, 우아지역아동센터, 인후지역아동센터, 중산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교사 203명

♥ 단양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단양지역아동들의 영어와 친구되기 캠프 Who are you?!”

2011. 7. 10 ~ 7. 12 | 충북 단양대명리조트

- ★ 원어민과의 만남이 낯선 아이들의 2박3일 영어캠프. 타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의 교류와 놀이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재미있는 영어 체험을 통해 호기심과 실력을 키운다.
- ★ 단양지역아동센터, 도란도란지역아동센터, 매포지역아동센터, 별방지역아동센터, 한드미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교사 130명



♥ 광주 남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자연을 벗삼아 - 이루어지는 숲”

2011. 8. 17 ~ 8. 19 | 전남 화순 백아산자연휴양림

- ★ 도시의 개구쟁이들이 숲 속에 모여 나의 모습, 나의 꿈을 탐색해본다. 숲과 하나 되어 '나', '너' 나아가 '우리'를 통해 탐구정신, 문제해결 능력, 협동심, 표현력, 인간애를 함께 배운다.
- ★ 무지개지역아동센터, 미래지역아동센터, 봉선지역아동센터, 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 사랑모아지역아동센터, 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교사 138명

♥ 해천나래 연합공동체 “통통 튀는 우리들의 나눔 이야기”

2011. 8. 17 ~ 8. 19 | 전북 김제청소년수련관

- ★ 독서를 통해 알게 된 간접경험을 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하며 놀이를 통한 친구관계 형성과 나눔의 즐거움을 체험한다.
- ★ 동산지역아동센터, 든든한지역아동센터, 미소지역아동센터, 반석지역아동센터, 옥야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평화디딤돌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교사 120명



♥ 연수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우리들의 여름바다 이야기”

2011. 8. 9 ~ 8. 11 | 인천시 옹진군 소야도

- ★ 잘 알려지지 않은 소박한 섬 소야도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조개줍기, 등산, 삼림욕, 모래사장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갖는다.
- ★ 능허대지역아동센터, 램넌트지역아동센터, 선학지역아동센터, 쉼마지역아동센터, 위즈키즈지역아동센터, 청담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교사 154명



♥ 작은지역아동센터연합

“땅끝에서 인천까지 하나 되는 우리Ⅱ(경진이의 인천나들이)”

2011. 8.10 ~ 8.12 | 인천대학교

- ★ 도시 체험의 기회가 없는 경진이와 땅끝마을 친구들이 인천을 방문해 인천 친구들과 함께 인천의 곳곳을 찾아보며 미션을 수행한다. 해남과 인천,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친구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 ★ 땅끝마을지역아동센터,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석남지역아동센터, 예항지역아동센터, 충효지역아동센터,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교사 126명



♥ 상주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약자지결 2박3일”

2011. 8. 3 ~ 8. 5 | 경북 상주환경농업학교

- ★ 놀이와 체험을 통해 서로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생활을 경험한다. 캠프 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로 소감과 활동결과를 진지하게 나누어본다.
- ★ 다솜지역아동센터, 다사랑지역아동센터, 사랑받는지역아동센터, 상주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센터NCC, 엘림지역아동센터, 평화지역아동센터, 포도화동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교사 167명



♥ '사랑의 이웃사촌'

“꿈틀이들(Wiggled Guys)의 위풍당당 꿈 트리(Vision Tree) 행진”

2011. 7.25 ~ 7.27 | 전북 임실군 도화지 도예원

- ★ 자신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본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숨겨져 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시간,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 ★ 꽃동산지역아동센터, 늘빛지역아동센터, 생명샘지역아동센터, 아이소리지역아동센터, 엘림지역아동센터, 열린학교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교사 160명



♥ 웅상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드림 아이”

2011. 8.24 ~ 8.26 | 경남 양산시 해운수련원

- ★ 농촌의 아이들은 도시의 아이들에 비해 직업탐구에 대한 흥미와 기회가 적다. 연합캠프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자유로운 직업체험으로 자아형성 및 유대감을 강화한다.
- ★ 웅상지역아동센터, 웅상중앙지역아동센터, 한사랑지역아동센터, 동양산지역아동센터, 알파지역아동센터, 서창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교사 124명



우리 캠프는♥

첫째날! 어린이과학관 관람과 함께 점심식사도 하고 숙소 에 도착해서 배정과 함께 방을 꾸미고 입소식을 했어요. 그 때 춤을 췄는데 쑥스러웠어요.

둘째날!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가 뜨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차이나타운도 갔는데 이상한 동상이 짜장면집 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짜장면을 먹은 후 월미도에 가서 놀이기구도 많이 탔어요. 놀이기구를 2번이나 타서 그 런지 아직도 어깨가 쭈셔요. 그리고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 에 체육활동을 못했지만 역시 즐거웠어요.

셋째날! 일찍 일어나 수영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미끄럼을 쉼~ 타고 내려와 수영을 했어요. 맛있는 돈까스를 먹은 후 버스를 타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즐거운 날이었어요.

—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김미리 (효성초등학교 4학년)

♥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자기주도적 스포츠 캠프-야호! 우리가 해냈다”

2011. 8.16 ~ 8.18 | 충남 대천해수욕장

- ★ 캠프 활동을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한다. 경쟁보다는 협동, 나보다는 우리를 위해 서로 마음을 합치고 자부심 과 성취감을 고취시킨다.
- ★ 지구촌지역아동센터, 라이프지역아동센터, 서부지역아동센터, 송 내지역아동센터, 다정한지역아동센터, 사랑의지역아동센터, 부천 지역아동센터, 부천도담지역아동센터, 성산지역아동센터, 이웃사 랑지역아동센터, 원미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교사 131명



♥ 대덕사랑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가미희의 전통문화체험캠프”

2011. 8. 8 ~ 8. 10 | 충남 금산군 수통농촌체험마을

- ★ 옥수수 따기, 감자 캐기, 떡메치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조상들이 즐겨했던 놀이를 직접 따라해 보며 현재 우리가 누 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반성의 기회를 갖고 나아가 사 회성과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 극동지역아동센터, 대청지역아동센터, 비래지역아동센터, 서 광지역아동센터,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교사 120명

“연합”이라는 의미

다양한 생각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이 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랬기에 이번 캠프는 미래 를 향한 한걸음이라는 느낌이 강했고, 다음을 생각한다면 프 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는 많은 의 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처음이었기에 선생님과 아이들간의 어색함에서 오는 낯선 모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라는 인식이 되어갔다. 외부와 단절된 숲이라는 공간에서 도시문 명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어나가는 방법 을 터득하고 배우는 시간은 아이들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채워나가는 시간이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와 달리 비가 자주 와서 프로그램 진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연합캠프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내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다.

— 광주무재지역아동센터 이선경 (교사)

함께 만들어간 대본으로 직접 공연까지

교사 사전캠프 6월 27일~29일 '연극놀이를 통한 마음열기' 로 진행

2011 어린이 연합캠프에 지원이 결정된 11개 캠프의 공부방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 사전캠프가 지난 6월 27일~29일, 2박 3일 동안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교사 사전캠프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4년부터 사랑의 친구들이 펼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창조적 관계형성을 위한 연극놀이"를 주제로 총 25개 지역아동센터에서 26명의 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사랑의 친구들에서는 매년 공부방이 연합해 진행하는 캠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캠프를 준비하는 공부방의 실무자들은 학습, 급식, 아동과 학부모 상담 등의 일상적 업무가 많고 캠프에 필요한 지식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사전캠프에 참여한 교사들은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연극놀이를 통해 창의적 상상력과 자기표현의 다양한 방법



을 경험해 보고 자신들이 직접 연극의 대본을 쓰고 공연해 봄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사전캠프는 공부방 지도자들이 캠프의 참여자로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어린이들과 유익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캠프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류를 통해 공부방간, 교사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2011 공부방 교사 사전캠프의 진행은 '함께 하는 연극,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연극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단체 '해마루'의 전문 강사들이 맡았다. 2박 3일에 걸쳐 총 20시간의 연극놀이 워크숍을 이수한 교사들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마지막 날에는 2011공부방 어린이 연합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연합캠프를 소개하고 의견을 함께 나누며 보다 나은 캠프 진행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2011 공부방교사 사전캠프를 마치며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노는 것도 힘들었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항상 딱딱한 교육에만 익숙해 있던터라 몸을 움직인 다든지 표현하는 게 어색하고 마음대로 잘 안된 부분도 있었지만 마음을 열게 하고 풀어주어서 다른 센터 선생님들과 편안한 교감이 이루어진 것 같아 2박3일이 즐거웠던 것 같다. 아이들에게 놀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잘 접목시킬지 숙제로 받아간다."

"나도 한국사람임이 틀림없는데 국악 장단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이처럼 어색할 줄이야...그래도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이사회〉 제 27차(8월 24일)
〈운영위원회〉 제 130차(3월 15일), 제 131차(4월 13일), 제 132차(5월 25일), 제 133차(7월 5일), 제 134차(8월 24일)
〈2011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 준비위원회〉 1차(7월 5일), 2차(8월 24일), 3차(9월 7일), 4차(9월 21일), 5차(10월 5일), 6차(10월 12일)

◎ 개별아동 후원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를 후원자와 1대 1로 연결하여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매달 5만원씩 장학금을 후원하는 개인후원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주)쌍크드보떼를 비롯해 12명의 후원자가 16명의 어린이와 결연을 맺고 함께 꿈을 키우고 있다.

◎ 2011 저소득지역 어린이 연합캠프 약정식



2011 저소득지역 어린이 연합캠프 지원기관 증서 전달식이 4월 28일 사랑의 친구들에서 열렸다. 3월 14일에 열린 연합캠프 설명회를 시작으로 서류심사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원이 확정된 11개 연합의 대표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동안 진행될 캠프 지원 증서를 전달하고 연합캠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수의 지역아동센터가 연대하여 준비하고 진행하는 연합캠프는 지역아동센터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외지역의 어린이들은 캠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집단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2011 사랑의 떡국 나누기 감사모임



3월 15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2011 사랑의 떡국나누기'에 참여한 준비위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을 모시고 결과보고 및 감사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김성재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목표했던 2,500개의 떡국 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성금이 모금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으로 무사히 행사를 마친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가정에 더 많은 떡국 바구니를 전달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 한국녹색문화재단과 함께 한 '나눔의 숲 캠프'

사랑의 친구들과 한국녹색문화재단이 함께 하는 나눔의 숲 캠프가 2011년 1월~4월에 걸쳐 38개 지역아동센터 총 1,096명의 어린이와 교사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 청태산 숲체험원에서 진행되었다. 나눔의 숲 캠프는 자연을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도시 어린이들이 숲 속 도미노, 자연물 난타, 목재 카프라 등 다양한 숲속활동과 더불어 밤하늘의 별과 함께 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사랑의 목도리 뜨기_ 북한 어린이에게 이희호 명예회장,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뜨 목도리 지원



하는 마음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이희호 명예회장을 비롯해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사랑의 친구들 임직원이 뜨개모임을 구성해 목도리를 완성하면 오랜 동안 북한 의료지원을 해온 유진벨재단을 통해 평북 구성시, 평남 안주시, 평남 순천시, 평남 천리마군에 소재한 인민병원의 어린이 환자와 북한 가정 에 지원된다.

2010년 한해 동안 완성된 목도리 1,500점은 10월 경에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며 올해도 뜨개모임 등을 통해 꾸준히 목도리를 뜨고 있다. 목도리 하나를 뜨기 위한 후원금은 1만원, 뜨개에 관심있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라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다. 사랑의 목도리 뜨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사랑의 친구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 돕기의 하나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가 목도리를 직접 떠서 보내는 '사랑의 목도리 뜨기' 캠페인을 2010년부터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기원

사랑의 목도리 뜨기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인 강순원, 강혜옥, 고정희, 김경애, 김경희, 김미애, 김성수, 김수정, 김순자, 김유락, 김은화, 김인영, 김재원, 김정열, 김지연, 김지현, 김진희, 김홍남, 박미남, 박영숙, 박은경, 박은석, 박정희, 박희경, 배외숙, 배은영, 배주영, 백봉현, 백진숙, 변인식, 성낙진, 송기복, 송주숙, 신경혜, 윤현봉, 이경숙, 이명숙, 이미경, 이미경, 이미정, 이수금, 이수연, 이정원, 이종욱, 이해경, 이희호, 인재근, 조민자, 조흥식, 주민자, 최옥희, 최진이, 한상옥, 한선희, Raterz 가족, 단체 5.17가족, 다비다모자원,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전농방과후교실, 화양꿈나무지역아동센터

사랑의 목도리 뜨기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순원, 고정희, 김경영, 김경희, 김근태, 김기선, 김동규, 김명임, 김명준, 김미경, 김미애, 김병민, 김병준, 김순자, 김유락, 김은화, 김인영, 김재원, 김정열, 김진희, 박상준, 박영숙, 박은경, 박은석, 박정희, 박태경, 박필규, 박희경, 배외숙, 배은영, 백진숙, 심해섭, 윤미정, 이경숙, 이동진, 이명숙, 이미경, 이정원, 이종욱, 이춘형, 인사모, 인재근, 조흥식, 주민자, 주상희, 최병일, 최소영, 최옥희, 최영희, 최진 이, 한선희, Raterz 가족, 5.17가족,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전농방과후교실, 화양꿈나무지역아동센터



◎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후원금 기부



3월 28일 국민은행 청운동지점의 김봉열 지점장과 김홍진 팀장이 사랑의 친구들을 방문해 형편이 어려운 지역 어린이가 돕기에 써달라며 후원금 150만원을 기부했다.

◎ 논술학원 '생각의 좌표' 후원금 기부

논술학원 '생각의 좌표'에서는 수강료의 2%를 사랑의 친구들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뜻을 모은 아동이 4월에 14명, 5월에는 17명이 동참했다.

◎ 일본 지진피해 성금 전달

이희호 명예회장은 지난 3월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에 조속한 피해복구를 희망하며 재해를 입은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노력과 일본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번 재앙을 극복하리라 믿는다"는 격려를 담은 서한과 성금 300만원을 일본에 전달했다. 성금 전달은 3월 22일 김성재 회장이 일본대사에게 전달했다.

◎ 콜롬비아 이재민 돕기 성금 전달

사랑의 친구들은 유래 없는 홍수와 산사태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콜롬비아 국민들을 위해 조속한 피해복구와 생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1천달러를 지원했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12월 폭우와 산사태로 300여명의 사망자와 120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금은 지난 3월 4일 사랑의 친구들 김순자 이사가 주한콜롬비아대사관에 전달했다.

◎ 김성재 회장 명예철학박사 학위 받아

김성재 회장이 5월 23일 경남대로부터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경남대는 공식수행능력과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인 결식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공로, 학문적 연구성과 등을 높이 평가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 (주)대상, 햄과 양념 255박스 물품후원

(주)대상은 지난 7월 27일 '사랑의 떡국나누기'를 통해 어려운 가정에 나눌 수 있도록 햄 170박스(3,060개)를 기증했다. 이밖에 고기양념도 85박스 기증해 양념은 필요로 하는 공부방에 지원할 예정이다.



물품나누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드리루센드화장품 강남21본부(본부장 이미경)에서 매달 후원하고 있는 화장품과 헤어케어 제품은 4월 14일 리드릭(장애인보호작업장)에 지원했고, 미래회에서 후원한 비누와 화장품, 유라에서 후원한 자켓은 5월 2일 광림교회외국인노동자센터에 지원했다. 5월 25일에는 구로자활후견기관에 의류 및 아나바다 물품을 지원했다.

3.2 팔방북스토리 _ 도서 기증

5.6 대풍직물 _ 의류 기증

8.5 외환은행나눔재단 _ 우표 기증

연락처 등이 누락돼 기부하신 후원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팀(담당 김향미) : 734-4945 ~ 7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아름다운 나눔 10년

전국 731개 기관, 23,719명의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간식 지원



2001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간식나누기가 올해로 10년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빈곤이나 가정해체 등으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배고픈 아이들의 사정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사랑의 간식을 지원받은 공부방은 모두 731개 기관, 어린이들의 수는 23,719명에 달한다. 두 항공사에서는 매주 화요일 항공기에 실렸다가 개봉되지 않은 채 다시 내려지는 주스류와 라면, 견과류 등을 사랑의 친구들에 지원한다. 사랑의 친구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적당한 양으로 나누고 재포장하여 간식이 꼭 필요한 공부방을 선정해 6개월씩 후원한다.

2001 8.6. (일)
 사과와 라면과 과자랑 더러가게 보면 과자들이 맛있어서
 좋고 사과를 진심으로 한테 줘서 맛있다고했다
 그리고 주스는 다른 주스랑 맛은 다른데
 알았다 오렌지 주스가 너무 맛있어서 가져다
 먹고싶다 그리고 과자, 음료수, 빵들을 가져다
 사랑의 친구들이 좋다 그리고 초콜릿도 맛있어
 -오지민 -
 은평구 3학년

사랑의친구들은
 만드신분!
 감사합니다
 =
 맛있었어요



사랑의 간식 나누기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권영덕, 고옥례, 김광희, 김미경, 김수자, 김춘례, 김향희, 김현숙, 박수진, 박정옥, 서정호, 설병금, 송은숙, 이상숙, 이연숙, 이윤애, 이희호, 장명숙, 장석자, 정신화, 지차숙, 진연석, 최용자, 호문철, 황영심, 황인순

사랑의 간식 나누기 지원 기관

	회기	정기 지원		비정기 지원		합계	
		수혜기관	수혜인원	수혜기관	수혜인원	수혜기관	수혜인원
2001	1기	19	661	64	1,733	83	2,394
2002	2기	27	790	73	2,897	100	3,687
	3기	31	821	56	1,662	87	2,483
2003	4기	29	787	28	961	57	1,748
	5기	35	813	33	1,516	68	2,329
2004	6기	39	970	17	585	56	1,555
	7기	26	791	-	-	26	791
2005	8기	26	791	-	-	26	791
	9기	36	1,119	-	-	36	1,119
2006	10기	22	822	-	-	22	822
	11기	21	810	-	-	21	810
2007	12기	21	741	-	-	21	741
	13기	19	830	-	-	19	830
2008	14기	20	777	-	-	20	777
	15기	14	552	-	-	14	552
2009	16기	11	367	-	-	11	367
	17기	8	227	12	360	20	587
2010	18기	10	299	-	-	10	299
	19기	12	421	-	-	12	421
2011	20기	12	357	-	-	12	357
	21기	10	259	-	-	10	259
합계		448	14,005	283	9,714	731	23,719

간식 덕분에 조금 더 행복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간식 먹는 모습을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 싶는데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2시에서 2시반 사이에 간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오는 게 아니고, 또 다 나눠주고 사진 찍다보니 간식이 거의 초토화돼서 제대로 나온 사진이 별로 없네요. 아이들이 간식 덕분에 조금 더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명목지역아동센터 (2011-06-28)

기분만은 비행기 탄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참으로 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옛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흘러 버렸네요. 비록 비행기 타고 여행은 못하지만 기내에서 먹는 기분으로 기쁨으로 간식을 먹을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다음에도 저희들에게 이런 절호의 기회를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서강지역아동센터 김혁중 드림 (2010-06-16)

색다른 맛의 라면과 과자에 반했습니다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내식 물품을 간식으로 이용하다 보니 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어 너무나 좋습니다. 아이들도 색다른 컵라면의 맛과 다양한 과자를 먹으면서 처음 접하는 간식에 흡족해 합니다. 나눔을 통해 후원해주신 마음을 읽고 감사하는 편지를 쓰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의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물품을 제공해 주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감사인사 올립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를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일동지역아동센터 (2010-06-24)